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나선다

‘혁신도시 시즌2’ 맞춰

자치단체·입주기관

해외 혁신도시 사례 조사

스마트 에너지시티 연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조사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빛가람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등과 한국전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입주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

기 위해 해외 혁신도시 사례조사·연구에 들어간다.

주요 선진 사례로는 세계적인 ICT산단을 구축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 문제를 우선 반영한 ‘하마비 허스타드’ 등이 있다. 또 재생에너지를 연구·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프랑스의 ‘라 데팡스’, ‘앙티폴리스’ 등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들 기관들은 해외 선진도시별 도시개발전략과 도시관리 및 운영 방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와 형성과정을 연구해 그 결과를 발전계획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라 혁신도시를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 스마트에너지그리

드 등 에너지 정책 선진사례를 조사·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바이오 가스 등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조달과 폐수·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태양열을 이용해 냉·난방비 등을 절감하는 등 자원순환 모델이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IT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와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사례 등도 조사하게 되며, 선진도시별 관계법령과 제도, 발전기금 등 우수사례도 수집한다.

IT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와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사례 등도 조사하게 되며, 선진도시별 관계법령과 제도, 발전기금 등 우수사례도 수집한다.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한 무상지원금, 연구개발 입주업체의 투자금 지원, 저가임대, 보조금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혁신도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

성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공연 등 정주 여건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공간을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고, 대중교통이 이동수단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한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사례처럼, 도시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한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혁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사·연구다”며 “빛가람혁신도시에 접목 가능한 혁신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기관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도시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연수를 진행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기각

나주시, 항고 여부 놓고 고민

새롭게 다들 법리 사안 없고

시장 지방선거 출마 부재 중

법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광주일보 5월 16일 15면)과 관련, 나주시가 항고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열병합발전소를 비롯,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등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나주시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14일 광주지법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 중이다.

당장, 나주시는 2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 금지를 내세워 주장해온 쟁점 대부분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추후 재판에서도 새롭게 법리(法理)를 다뤄볼 사안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나주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 부재중인 점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나주시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여태껏 보류중인 발전소 건축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전소 운영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자칫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건축허가진행중인 나머지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무릅쓰고 항고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42억 5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에도 소송 과정

에서 2~3월 손해배상액 43억7700만원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액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나주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여기에 광주시와 ㈜정명빛고유이 광주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자원화시설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곳곳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하루 530t)를 고품질연료(SRF·Solid Refuse Fuel)로 만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기로 했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에 쓰일 고품질연료를 전남지역의 광주에서 반입하는 데 따른 나주시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등은 이같은 점을 감안, 연료를 처리하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애초 합의서와 달리, 발전소에 쓰일 연료를 ‘비정형’ 고품질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는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에 대한 나주시 입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도 제조한 고품질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률대리인 등과 법원 판단을 분석하는 한편, 항고 여부에 따른 실익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한전KDN 임직원들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지온보육원 아동들을 초청해 놀이공원으로 봄철 나들이를 다녀왔다. (한전KDN 제공)

보육원 아동 초청 공원 나들이

한전KDN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2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지온보육원 아동들을 초청해 임직원 가족들과 놀이공원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50여명의 가족들은 1일 보호자로, 보육원 아동들과 놀이기구를 타고 장미축제를 즐기며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은 지온보육원과 지난 1995년 인연을 맺어온 이래 매년 5월 지온보육원아동들을 초청해 기념과 및 놀이공원 관람, 체육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얇은뱅이밀·곤충식품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 9개 선정 지원

농식품부·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규 수출유망품목 9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품목은 ‘얇은뱅이밀’, ‘푸른콩’ 등 100% 국산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킹스베리’ 등 종자료열매를 내지 않는 국내개발 우수품목이다.

또 ‘청양고추분말’, ‘작두콩차’ 등 국산 원료를 100% 활용하고 특허기술을 적용해 차별성을 확보한 품목과 미래형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식품’ 등이다.

이날 aT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45억불에서 92억불로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3.5%)의 2배가 넘는 성과다. 하지만, 연간 1억불 이상 수출되는 품목은 10개로,

이 중 수출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품목은 인삼과 김 등 두 가지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aT는 수출확대가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래 K-FOOD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올해도 농가소득기여도, 한국고유의 차별성, 수출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신규 미래 품목을 선정해 기존품목과 함께 21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미래 품목으로 선정되면 aT의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전문 무역상사의 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성 테스트, 시험수출 및 수출정착지원, 시장다변화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사업사는 “국가의 대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확대와 함께 농가소득 증가도 염두해야 한다”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미래에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영국서 K-POP 쇼케이스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개최

문체부·콘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영국 브라이튼 지역에서 열린 ‘TGE 2018’(The Great Escape Festival 2018)에서 K-POP 해외 쇼케이스 ‘코리아 스포트라이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실력과 뮤지션을 세계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3호선 버터플라이 ▲빌리카터(Billy Carter) ▲세이수미(Say Sue Me) ▲아

도이(ADOY) 등 총 4팀이 무대에 올랐다. 페스티벌 기간 뮤지션 4팀 모두 공식 쇼케이스 외 추가 공연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쇼케이스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 참가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원하는 글로벌 업체를 선정, 1대 1 매칭하는 ‘매치 메이킹’(Match Making)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공연을 마친 뮤지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비즈니스 미팅 및 인터뷰를 진행,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음악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